

# 정우회 국회의원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와 조선사회

이형식\*

**초록** 모리야는 조선 제임 시절에는 조선 총독의 ‘문고리 권력’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1924년 조선을 떠났어도 조선에 남아 있던 ‘내무성 인맥’과 동북지역 인맥을 배경으로 조선에 영향력을 미쳤다. 중의원 의원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정치단체인 대일본 소화연맹의 조선지부를 설치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지지세력을 규합하는 데 이용하였다. 모리야는 전관 변호사로서 자신의 ‘조선인맥’을 이용하여 조선에서 굵직한 사건을 맡았고 재조일본인과 조선인 유력자들의 식민지 로비(colonial lobby)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조선사회와 조선 헌안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우회 시절 모리야가 관여한 조선산업사건, 함흥수력전기 설립, 조선토목담합사건, 나진토지수용문제 등을 사례로 식민지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구명해 보았다.

모리야는 전관 변호사로서 재판 중에 재판관들과 사전에 접촉하거나 조선총독, 총리, 제1당인 정우회를 동원하여 조선산업사건, 조선토목담합사건 등의 재판을 의뢰자에게 유리하게 이끌었다. 토지를 갈취당한 조선인들을 외면한 아쿠쓰 재판 변론을 통해서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얻었을 뿐 아니라 중의원 의원 사무실 유지비도 마련할 수 있었다. 재조일본인 유력자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했던 것이다.

한편, 함흥수력전기 설립이나 나진토지수용문제 등과 같은 조선 이권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만철, 지방정부 등과 접촉하여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 비록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좌절되었지만 함흥수력전기 설립을 위한 모리야의 ‘식민지 로비’는 ‘정경관(政經官) 유착’을 통한 ‘식민지 개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모리야 에이후, 정우회, 대일본소화연맹, 조선신탁사건, 토목담합사건, 나진토지수용문제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HK 교수

##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재조일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의 청원, 진정 청구인 제국의회 ‘조선통’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sup>1</sup>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1910년대, 1920년대에 집중되어 있고, 직업으로는 경제인이나 언론인에 치중되어 있다. 본 논문은 모리야 에이후라는 조선총독부 관료 출신의 ‘전관 변호사’이자 ‘제국의회 ‘조선통’에 초점에 맞추어 식민지 통치의 자장 속에서 모리야가 조선통치와 조선 현안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살펴보겠다.

모리야 에이후는 3·1운동 직후에 내무성에서 조선총독 비서과장으로 부임해 총독부 인사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총독·정무총감의 훈시를 작성하고 기밀비를 관리하는 등 조선 통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시 조선 언론에서는 ‘모리야 정치’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sup>2</sup> 모리야는 1924년 7월 호헌삼과내각 성립으로 헌정회 계열의 시모오카 주지(下剛忠治)가 정무총감으로 부임한 후 얼마 안 있어 내무성으로 다시 돌아간다. 1928년 1월에는 내무성을 사직하고 고향인 미야기현에서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정우회에 입당하여 6회 연속 선출되었다. 1934년 7월 오카다 내각이 성립하자 정우회 장로들의 추천으로 농림정무차관에 취

1 대표적인 연구로는 전성현(2013), 「식민자와 조선: 일제시기 大池忠助의 지역성과 ‘식민자’로서의 위상」, 『한국민족문화』 4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이형식(2014), 「1910년대 일본제국의회 중의원과 조선통치」, 『사총』 82,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김종식(2016), 「1910년대 재조일본인 정치가의 정체성 형성과정: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藏)를 중심으로」, 『사립』 56, 수선사학회; 이승엽(2018), 「재조일본인 중의원 의원 오이케 주스케」,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 어문학사; 하지영(2021), 「1920년대 전반기 군산의 일본인 阪上貞信의 제국의회 진출과 활동」, 『석당논총』 81, 동아대학교 석당연구원; 이동훈(2022),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藏)의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제국의회 중의원과 식민지 언론인의 활동」, 『석당논총』 82, 동아대학교 석당연구원; 전성현(2022), 「‘조선관계대의사’ 사토 준조(佐藤潤象)와 식민지 조선의 개발사업」, 『한국근현대사연구』 101, 한국근현대사학회 등이 있다.

2 松田利彦(2009), 「朝鮮總督府官僚守屋榮夫と「文化政治」: 守屋日記を中心に」, 松田利彦·やまだあつし編,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思文閣出版를 참조할 것.

임했다. 하지만 야당으로 전락한 정우회가 내각에 참여했던 도코나미 다케지로(床次竹二郎)와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등 내무성 출신의 비주류파를 제명하자 모리야는 이들을 따라 정우회를 탈당하고 소화회(昭和會) 결성에 참가했다. 모리야는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도코나미, 미즈노를 따라서 소수 정당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모리야의 무소속 및 정우회 시절(1929-1934)은 조선에서는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사이토 마코토(齋藤實)-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로 총독이 교체되었고, 일본에서는 정당 간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정당내각 시기를 거쳐, 해군 출신의 사이토, 오카다의 거국일치내각이 수립되었다. 또 잦은 내각 교체에 따라 중의원이 해산되어 2년에 한 번 꼴로 총선거를 치르는 격심한 정치변동을 겪었다. 즉 내각, 조선총독도 자주 교체되었고 보통선거제와 함께 중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정우회, 민정당 2대 정당 사이에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면서 2년마다 투표 쏠림(national swing) 현상이 일어났다.<sup>3</sup> 일본, 조선 모두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빈번한 선거로 인해 막대한 정치자금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총독의 ‘문고리 권력’으로 조선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던 모리야는 이러한 정치적 격변기에 조선 통치에 어떻게 관여했을까. 본 논문에서는 정우회 국회의원 시절 모리야가 관여하는 조선산업사건, 함흥수력전기설립문제, 조선토목담합사건, 나진토지수용문제 등을 사례로 식민지 조선에서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3 1928년 중선거제가 도입되면서 national swing이라고 불릴 만큼 극심한 투표 쏠림을 보였다. 정우회와 민정당의 의석 수는 제16회(1928. 2., 다나카 내각) 218 : 216, 제17회(1930.2., 하마구치 내각) 174 : 273, 제18회(이누카이 내각, 1932.2.) 301 : 146로 요동쳤다. 이에 대해서는 川人貞史(1992), 『日本の政党政治 一八九〇—一九三七年: 議會分析と選舉の數量分析』, 東京大學出版會를 참조할 것.

## 2. 조선총독부의 모리야 인맥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 수뇌부가 대거 경질되면서 조선총독부의 권력구조는 191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1]은 사이토 총독 시기의 조선총독부의 권력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3·1운동 이후 조선에 부임한 미즈노 정무총감의 의뢰를 받은 모리야는 조선에 부임할 내무성 관료들의 선임과 교섭에 관여했다. 미즈노 정무총감은 ‘미즈노 인사’라고 불리는 인사이동을 감행하여 조선총독부 수뇌부를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특히 다이쇼(大正) 8년인 1919년에 내무성에서 부임한 관료들은 ‘다이쇼8년조’(大正8年組)라 불리며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며 1910년대부터 조선총독부에 근무하고 있던 ‘토착관료’들과 인사,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하였다.<sup>4</sup> 이입관료들의 일부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조선에 남은 관료들은 [표 2]와 같이 1930년대 초중반까지 조선총독부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표 1] 사이토 총독 시대의 조선총독부의 권력구조

조선총독부관료		총독측근(비선)
‘토착관료’	이입관료(‘大正8年組’)	菊池謙讓, 阿部充家, 細井肇
大塚常三郎, 生田清三郎	守屋榮夫, 경찰관료(丸山鶴吉, 赤池濃 등)	
○ 東北閥·仙臺閥		

출처: 松田利彦(2008), 「朝鮮總督府祕書課長と「文化政治」: 守屋榮夫日記を讀む」,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p. 218의 표 1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4 이에 대해서는 李炯植(2013), 『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吉川弘文館를 참조할 것.

[표 2] 조선에 남은 '大正8年組'

성명	고향	고교	대학	조선 부임 당시 직책	최종 직책
藤原喜藏	岩手	2高	도쿄제대	경무국사무관	평남 지사(1935)
石川登盛	岩手	2高	도쿄제대	전북재무부장	평북지사(1932)
渡邊忍	新潟	2高	도쿄제대	충북내무부장	농림국장(1935)
古橋卓四郎	愛知	7高	도쿄제대	경찰강습소소장	함북지사(1931)
關水武	神奈川	2高	도쿄제대	충남경찰부장	함남지사(1936)
松村松盛	宮城	2高	도쿄제대	전북경찰부장	식산국장(1931)
馬野精一	山口		와세대대	황해도경찰부장	전남지사(1931)
岡崎哲郎	宮城	1高	도쿄제대	평남제2부장	전북내무부장(1932)
田中武雄	三重		메이지대	경무국사무관	정무총감(1944)
黒木吉郎	宮崎	5高	도쿄제대	경기도사무관	경기내무부장(1932)
渡邊豊日子	熊本	5高	도쿄제대	내무국 제1과장	학무국장(1936)

출처: 李炯植(2013), 『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吉川弘文館, pp. 89-91에서 작성.

한편, 총독의 '문고리 권력'이었던 모리야는 조선총독부 재직 시절 고향인 동북 지역 출신 500여 명을 조선의 관공리, 교직원 등에 취직시켰다.<sup>5</sup> 게다가 사이토 총독은 센다이번(仙臺藩)의 지번(支藩)인 미즈사와번(水澤藩) 출신이고 미즈노 정무총감도 아오모리현 출신인 관계로 사이토 총독 시기에는 '토착관료', '이입관료' 관계없이 '도호쿠별'(東北閥), '미야기별'(宮城閥), '센다이별'(仙臺閥)이라고 하는 일본 도호쿠 지역(특히 宮城, 岩手) 출신들이 약진했다.

모리야는 1924년 9월 내무성 사회국 제2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조선을 떠났지만 총독부 인사에 대한 영향력은 유지할 수 있었다. 총독 비서관을 마쓰무라 마쓰모리(松村松盛), 후지와라 기조(藤原喜藏)와 같은 동향의 후배들이 맡았고 자신이 추천하여 조선에 부임한 '다이쇼8년조'들이 총독부와

5 手塚雄太(2018), 「第一回普通選舉における選舉運動: 内務官僚・植民地官僚守屋榮夫を事例として」, 『史潮』 84, 歴史學會, p. 88.

지방관청의 요직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토가 총독에서 물러나고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가 1927년 12월에 조선총독으로 부임하자 “센다이벌(仙臺閣) 일소, ‘다이쇼8년조’는 (총독부) 본부 안에 1명도 남겨 두지 않는다는 선전”이 시행했다.<sup>6</sup> 사이토 총독이라는 강력한 후견인이 사라지자 야마나시 총독 시기에는 이쿠타 세이자부로(生田清三郎) 내무국장으로 대표되는 ‘토착관료’가 세력을 회복하여 ‘센다이벌’, ‘다이쇼8년조’ 세력은 조금 후퇴하지만 큰 타격은 받지 않았다. 야마나시 총독, 이케가미 시로(池上四郎) 정부총감이 모리야가 속해 있는 정우회를 여당으로 하는 다나카 내각에서 임명되어 모리야 인맥은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929년 8월 사이토 총독이 다시 조선에 부임함에 따라 모리야의 조선 인맥은 세력을 만회하였다.<sup>7</sup> 하지만 1931년 6월 우가키 총독이 부임하면서 “소위 반미야기벌은 이번에 미야기벌 복멸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고<sup>8</sup> 실제로 ‘도호쿠’ 세력은 요직에서 밀려나가거나 퇴직하여 크게 쇠퇴했다.<sup>9</sup>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우가키 인사’도 모리야가 우가키 총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 
- 6 1928년 3월 18일자 사이토 앞 藤原喜藏 서한(일본국회도서관헌정자료실 소장 「齋藤實關係文書」 1338-5).
- 7 『朝鮮新聞』 「閑題目」 1930년 11월 5일자. ‘大正8年組’ 결속과 그 잠재력이 견고(牢乎)하다고 평하고 있다.
- 8 1931년 6월 26일자 모리야 앞 高橋安巳 서한(일본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 「守屋榮夫關係文書」 86-352-18). 이하 「守屋榮夫關係文書」는 守屋-문서번호 형식으로 약기한다.
- 9 大西比呂志·李圭倍(1997), 「昭和期の朝鮮總督府支配: 宇垣一成を中心に」, 『靑丘學術論集』 11,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pp. 77-81.

### 3. 소화연맹 조선지부의 결성

모리야는 1928년 내무성을 퇴직하고 중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1928년 1월 아버지의 양해를 얻고, 선거비용 준비계획도 세웠다. 1월 19일 일본구락부에서 시부야(渋谷), 오카자키(岡崎), 사이토(齋藤), 이시모리(石森), 아키우(秋保)와 회합하여 입후보문제를 협의하고 1월 24일에는 ‘다이쇼8년조’인 이토 다케히코(伊藤武彦, 전 총독 비서관), 야스타케 다다오(安武直夫, 전 식산국사무관), 마쓰무라 마쓰모리를 만나 선거대책을 논의했다. 1928년 2월 일본에서 최초로 실시된 보통선거에 무소속으로 고향인 미야기현 제1구에 입후보했다. 선거운동에는 총독부 시절의 상관인 아카이케 아쓰시(赤池濃, 전 경무국장·귀족원의원)뿐 아니라 동향의 『조선공론』 사장 이시모리 히사야(石森久弥)와 유럽여행을 함께했던 전 군수 김기선(金基善)이 응원연설을 했다.<sup>10</sup> 첫 출마이고 지지기반이 약해 고전이 예상되었지만 선전하여 제5위로 당선되었다. 이후 모리야는 연속 6회 당선되었다.

모리야는 1929년 중반부터 자신의 개인 정치단체인 대일본소화연맹(大日本昭和聯盟) 결성에 착수했다. 평소 서신을 교환하고 있는 3,000명의 지인에게 서한을 보내 약 5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sup>11</sup> 1929년 8월 경에는 소화연맹이 발행하는 책자를 전국에 보내 회원 확보에 나섰다. 모리야의 고향 후배인 사사키 주우에몬(佐々木忠右衛門) 황해도 경찰부장은 “소화연맹 조직은 지방 청년 교양상 최상의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성 언저리에는 찬성과 반대가 나뉘져 있고 취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조선에서의 반응을 전했다.<sup>12</sup> 옥구 군수 김정기(金正基)는 9월 하순에 소화연맹 가맹 의사를 밝혔다.<sup>13</sup> 모리야는 1929년 10월 중앙조선협회 조선대회 참

10 手塚雄太(2018), p. 98.

11 (1929) 「昭和連盟設立の趣旨」, 『あかるい政治』 1, p. 5.

12 1929년 8월 28일자 모리야 앞 佐々木忠右衛門 서한(守屋-5-4-5-10).

13 1929년 9월 21일자 모리야 앞 김정기 엽서(守屋-84-3-26).

석을 위해 조선을 방문하였는데 같은 달 16일에는 소화연맹에 찬성한 조선인 30여 명 앞에서 연맹이 정치교육단체인 점을 명확히 하고 점진적 발전을 희망했다.

대일본소화연맹은 11월 25일 일본청년회관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발회식을 거행했다. 모리야가 설치 취지를 설명하고 회칙을 논의한 후에 미즈노 렌타로를 총재로 추대했다. 이사장에는 모리야가, 고문에는 나가타 히데지로(永田秀次郎, 귀족원의원), 후타라 요시노리(二荒芳徳, 귀족원의원), 이마이 고스케(今井五介, 귀족원의원), 아카이케 아쓰시, 니시무라 야스키치(西村保吉, 전 식산국장), 오자키 다카요시(尾崎敬義, 동척이사), 나카무라 도쿠주로(中村徳重郎, 변호사), 와타나베 사다이치로(渡邊定一郎, 황해사 사장)가, 이사에에는 스에마쓰 가이이치로(末松偕一郎, 중의원의원), 지바 료(千葉了, 전 경기경찰부장), 시라카미 유키치(白上佑吉, 전 경무국 사무관), 미야모토 데이사부로(宮本貞三郎, 내무관료), 모리타 후쿠이치(森田福市, 귀족원의원), 후쿠시마 준타로(福島潤太郎, 전 총독부 사무관) 등이 포진했다. 이들은 미즈노와 모리야가 내무성, 조선총독부 시절 인연을 맺어 왔던 인사들이었다. 아울러 100엔 이상 기부한 찬조회원으로 이관순(李寬淳)이, 10엔 이상 기부한 유지회원으로서는 신태린(申泰麟), 석명선(石明瑄), 엄창섭(嚴昌燮), 이창중(李昌重), 안원군(安原君), 김상설(金相高), 남궁영(南宮營), 문용규(文用圭), 김명준(金明濬), 임창재(任稔宰), 한상룡(韓相龍)이, 일반회원으로서는 80명이 넘는 조선인이 참여했다. 전체 회원 500여 명 가운데 1/5에 가까운 회원이 조선인이었다. 나아가 찬조위원으로 와타나베 사다이치로, 아라이 하쓰타로(荒井初太郎, 조선토목건축협회 회장) 이외에도 모리야와 친분이 있는 재조일본인들이 다수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후술하는 ‘토목담합사건’, ‘조선산업사건’ 등의 관계자들이 찬조회원, 유지회원 자격으로 소화연맹에 가입했다.<sup>14</sup> 회지 『아카루이정치』는 이들 조선 회원들의 인사이동, 도쿄 출장 등의 동정을 신고 있다.

— [www.kci.go.kr](http://www.kci.go.kr)

14 大平嘉重郎, 小倉武之助, 堆浩, 星出正雄 등.



소화연맹은 소화유신(昭和維新) 완성을 이상으로 삼아 정당·정파에 초월한 건전한 정치사상의 보급·발달과 공명한 정치 도덕의 진작, 확장을 목적으로 1) 경신(敬神), 존황(尊皇), 애국을 정치의大本(大本)으로 삼을 것, 2) 9천만 동포 최후의 일인까지 폐하의 적자(赤子)에 어울리는 생활을 달성하게 할 것, 3) 공존동영(共存同榮)의 대의에 의거하여 항구 평화를 건설할 것을 강령으로 내걸었다.

모리야는 발회식을 알리는 안내장을 조선에도 다수 발송했다. 전 군수 권태용(權泰容)은 “지난번 소화연맹 발회식을 모처럼 안내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출석하지 못해 유감입니다”, “동 회원 모집을 진력했지만 여름 동안 시는 벌레가 어찌 겨울의 얼음을 논하겠습니까. 동의자가 많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생명 보험에는 회사 주주를 모집하는 것처럼 강하게 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척 가운데, 3명, 지인 가운데 1명 계 4명에 그쳐 별지와 같이 신청서를 첨부합니다.”<sup>15</sup>라고 전했다. 무소속 상태에서 다가올 선거를 치를 수 없었던 모리야는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와 미즈노의 소개로 1929년 12월에 입헌정우회에 입당했다. 하지만 정우회 입당은 정당·정파에 초월한 건전한 정치사상의 보급과 발달을 내세운 소화연맹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로써 소화연맹은 모리야의 개인 정치단체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되었다. 참고로 모리야는 1927년 3월 22일자 서한으로 사이토 총독에게 권태용을 중추원 참의로 추천했다.<sup>16</sup> 아울러 권태용은 1930년 3월에 “소생 원래 부족한 자로 일단 퇴관하면 과거 동료거나 연배가 있는 사람처럼 지사가 되거나 참여관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아도 기러기가 나는 것을 보고 남생이가 밭을 동동거리는 부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생의 원

15 1929년 12월 27일자 모리야 앞 권태용 서한[이형식(2021), 『守屋榮夫關係文書』, 아연출판부, p. 134].

16 1927년 3월 22일자 사이토 앞 모리야 서한(일본국회도서관헌정자료실소장 「齋藤實關係文書」 1523-28).

래 희망은 관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추원 참의입니다.”<sup>17</sup>라고 중추원 참의 개선(改選) 때 사이토 총독과 관계 당국에 자신을 추천해 달라고 청탁했다. 권태용의 연맹 가입은 출세를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화연맹은 조선에서는 모리야의 선거지원 단체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모리야는 1930년 1월 11일을 중의원 사무국에 정식으로 정우회 입당 보고를 했다. 하마구치 민정당 내각이 의회를 해산하자 모리야는 야당으로 선거전에 임했다. 미즈노 전 정무총감도 사이토 총독에게 모리야의 선거 원조를 의뢰했다.<sup>18</sup> 아울러 조선, 사할린, 대만, 도쿄, 지바 각지에서 격려 전보가 쇄도했고 그 가운데에는 선거비를 원조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守屋日記』 1930.2.23.). 공주군청에 근무하는 쓰카모토 하루(塚本春)는 소화연맹에 가입하면서 ‘선거비용의 만분의 1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돈을 보냈고 모리야가 조선에 취업시켰던 기토 시게노리(木藤重徳, 대구공립중학교), 이마노 미치오(今野道夫, 인천상업학교)와 같은 동북지역 출신들은 정우회 입당을 응원하며 회비를 납부했다. 나아가 평북참여관 유만겸(俞萬兼), 오상근 등 모리야와 친분이 있는 조선인들도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돈을 송금했다.<sup>19</sup>

한편 같은 해 2월에는 소화연맹 경성지부가 설치되어 석명선(石明瑄), 김명준(金明濬), 신석린(申錫麟) 등 국민협회와 동민회 계열의 인사가 참여했다. 1930년 11월부터 협회 회지인 『아카루이정치』(あかるい政治)를 매월 발간하고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모리야는 거의 매호 이 회지에 투고했다. 『조선일보』(朝鮮日報)는 소화연맹에서 박영효, 한상룡, 와타나베 사다이치로 등을 위시하여 유력자들에게 조선지부 설립을 종용하고 있고 조선에서는 정

17 1930년 3월 30일자 모리야 앞 권태용 서한(앞의 『守屋榮夫關係文書』, pp. 135-136).

18 1930년 1월 23일 사이토 앞 미즈노 렌타로 서한(앞의 『齋藤實關係文書』 1458-34).

19 1930년 2월 13일자 모리야 앞 오상근 서한(앞의 『守屋榮夫關係文書』, p. 265); 1930년 2월 13일자 모리야 앞 유만겸 서한(위의 『守屋榮夫關係文書』, pp. 265-266).

우회 색채가 강해 그 설립에 시비의 논의가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sup>20</sup> 모리야는 1930년 11월에 지방관료들이 즐겨 읽는 『조선지방행정』(朝鮮地方行政)에 「소화연맹의 본질에 관해 말하다」(昭和連盟の本質を語る)라는 기고문을 투고하였다. 소화연맹이 정계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 교육 단체이고 정당·정파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연맹의 정신을 이해하고 공명한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후 조선에서 지부 결성이 잇따랐다.

1932년 10월 7일 경성지부 발회식이 경성구락부에서 고문, 간부 그 외 참가자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모리야는 10월 7일 임야조사위원회 사무관을 퇴임한 미우라 오노키치(三浦兪吉)와 지바의 발의로 경성 호텔에서 개최된 소화연맹 다화회에 참석했다.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성에 지부를 설치할 것과 장헌식(張憲植) 이하 간부의 면모가 결정되었다. 발회식에서 모리야는 정치교육의 필요를 역설했고, 회원 야마우치 히데오(山内秀雄)는 조선에서의 중의원의원 선출 문제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모리야는 실현은 시간 문제라고 답변했다.<sup>21</sup> 미야기현 출신으로 모리야의 추천으로 조선에 건너온 쇼시 히데오(庄司秀雄)는 소화연맹 경성지부의 상황을 모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지난 7일 경성지부 간부회를 개최하여 저도 꼭 출석해 달라고 종용하여 참석했습니다. 그 결과 결정된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부 사무소를 이시모리 공론사에 두고 실제 사무는 국민협회에서 집행할 것.
- (2) 지부 유지비는 간부 회원 각자 3엔씩 할당하여 제 경비를 지출할 것으로 결정.

20 「소화연맹지부를 조선에 설치설」, 『朝鮮日報』 1930년 10월 24일자.

21 「地方通信」(1932), 『あかるい政治』 3-11, pp. 61-62.

(3) 회원 모집 및 회비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안을 신속히 착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사무담당자로 方, 미우라, 소생 3인이 추가 되고 회계 사무는 국민협회의 김씨가 담당하기로 함.

(4) 사무소 설치를 혼마치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 어젯밤 미우라씨와 상담하고 張 지부장의 날인을 요구해서 모레 정도에 정식으로 신청할 것임.

(5) 지부회원 명부 목록 정리중인데 완성되는 대로 신입회원과 함께 송부할 것임.<sup>22</sup>

요컨대 경성지부 사무실은 이시모리 히사야가 사장으로 있는 『조선공론』(朝鮮公論)사에 두고 지부장은 장헌식이 맡고 사무는 국민협회 이사 방한복, 미우라 오노키치, 쇼시 히데오가 중심이 되어 담당하기로 하고 실제 사무는 국민협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간부회에 참가한 미우라에 따르면 경성지부 간부회는 국민협회에서 개최되었는데, 장헌식, 김관현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sup>23</sup> 경성지부는 모리야가 조선총독부 시절 후원했던 국민협회 간부와 이시모리, 쇼시 등 미야기현 출신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참고로 모리야는 1937년과 1941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협회의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 시행에 관한 청원을 소개했다.

같은 해 10월 9일에는 경북지부가 조직되어 발회식이 거행되었다. 발기인을 대표해서 전 달성군수 신현구(申鉉求)가 경과보고를 하고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상업회의소 회두가 좌장으로 간부 및 그 외 사항을 결정했다. 지부장에는 신현구가, 부지부장에는 야마다 고지로(山田孝次郎, 의사), 변호사 손치은(孫致殷, 전 대구부회의원)이 취임했다.<sup>24</sup> 참고로 신현구는 때때

22 1932년 11월 7일자 모리야 앞 庄司秀雄 서한(守屋-83-4-13).

23 1932년 11월 8일자 모리야 앞 三浦斧吉 서한(守屋-83-4-1).

24 「慶尙北道, 昭和聯盟支部大邱に生る」, 『朝鮮新聞』 1932년 10월 11일자.

로 인사를 청탁했는데, 모리야는 사이토 총독에게 참여관으로 추천했다.<sup>25</sup>

이듬해 11월에는 인천지부가 설치되었다. 11월 26일 공회당에서 발회식이 거행되었고 이케베 다케지(池邊竹次), 아쿠쓰 히로시(堆浩) 등 후술하는 조선신탁회사사건과 조선산업회사사건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좌장을 맡은 조선산업주식회사 이사 무라타(村田孚)는 개회사에서 “이번 의혹사건에 죄 없는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인류애의 존귀한 견지에서 변호하기 위해 경성에 온 모리야 씨로부터 소화연맹 강령을 듣고 매우 좋은 취지라 판단하여 경성, 대구 방면에도 지부가 생겨서 우리 인천 동지와 함께 의논하여 발회식을 거행하기로 했다.”라고 설립 취지를 밝히고 있다. 지부장에 인천상업회의소 회장 요시다 히데지로(吉田秀次郎)가, 부지부장에 무라타가, 간사에는 히와타시 가네사부로(樋渡兼三郎, 인천자동차회사 취체역), 무카이 사이이치(向井最一, 인천제향군인분회장), 요시키 켄스케(吉木善介, 인천부회 의원), 김용규(金容奎), 요시키 사스케(吉木佐助, 朝鮮海事會 인천지부 이사), 김윤복(金允福, 인천부회 의원), 히라오카 우타로(平岡宇太郎, 조선취인소 인천지부 지배인) 등 인천의 유력자들이 임명되었다.<sup>26</sup> 이후 모리야는 12월 3일 경성호텔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성지부 2회 총회에서 「조국 일본을 지켜라」라는 연설을 한다. 이 연설은 나중에 쇼시 히데오에 의해 책자로 만들어졌는데, 1933년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이후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 “성지를 받들고 조국애에 눈뜨라”, “국가적 전도에 흐르는 국제적 고립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설교했다.

이처럼 모리야의 개인 정치단체로 출발한 소화연맹은 조선에도 지부(경성, 인천, 경북)가 설치되어 회원을 모집했다. 모리야는 소화연맹을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정치자금, 선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하고자 하였다. 조선지부에는 모리야와 친분이 있는 재조일본인뿐 아니라 국민협회

25 1929년 11월 20일자 사이토 앞 모리야 서한(앞의 「齋藤實關係文書」 1523-32).

26 「京畿道, 昭和聯盟仁川支部發會式, 守屋代議士來鮮を機に盛大に舉行さる」, 『朝鮮新聞』 1933년 11월 28일자.

회원, 관료 등 조선인도 다수 가입했다. 이들은 모리야와 후견인-피후견인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에 있는 사람들로 모리야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출세를 지향했다. 1934년 7월 모리야가 오카다 내각의 농림정무차관에 취임하여 점차 조선문제와 멀어지게 되면서 대일본소화연맹 조선지부는 중일전쟁 이후는 이렇다 할 활동도 없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가 된다.<sup>27</sup>

그렇다면 중의원의원선거법이 시행되지 않은 조선에 모리야의 개인 정치단체인 소화연맹의 조선지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제조일본인과 ‘친일정치세력’이 일본의 특정 정치세력(정우회)과 연합하여 ‘총독정치’를 견제하거나 대응하려 했다는 점은 정당정치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다. 1920년대 일본의 중앙 정계에 진정·청원한 소위 ‘동상운동’(東上運動)을 억압했던 ‘우가키 통치<sup>28</sup>’에 대한 반감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 4. 조선신탁사건과 모리야

모리야는 1928년 2월 내무성 관료를 사직하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보통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하지만 “대의사는 직업이 아니다. 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변호사 등록하여 5월에는 도쿄와 센다이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불경기라 많은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의외로 조선 등에서 상당히 유리한 사건 의뢰가 있어서 사무실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守屋日

27 「昭和 14年 前半期 朝鮮思想運動概況」(「일제육해군문서」).

28 우가키는 1931년 6월 조선 총독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도지사회의에서 “진정 경쟁의 풍토가 있다. 효과도 없고 무용하고 유해한 행동이다.”라고 ‘상경운동’을 비판했다[角田順(1970), 『宇垣一成日記 2』, みすず書房, 1970, p. 806].

記」1928년 마지막 페이지). ‘상당히 유리한 사건’이란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일까. 모리야는 1928년 6월 조선을 떠난 지 4년 만에 중앙조선협회 조선 지부 총회 참석차 조선을 방문했다. 6월 15일 경성역에는 백 수십 명이 환영 나왔고 숙소에는 방문객이 넘쳐났다. 6월 16일에는 ‘다이쇼8년조’의 초대를 받았고, 6월 17일에는 신문기자들을 초대하여 시국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같은 날 갑자구락부의 진정을 들었는데 “오래된 이야기로 말도 안 된다.”라는 감상을 일기에 남기고 있다. 고향 출신의 주요 인물을 초대해서 선거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19일에는 동아일보에 초대되어 “송(진우, 필자 주)군, 김(성수, 필자 주)군 등의 氣焰을 들었”고 같은 날 국민협회 관계자의 환영회에도 참석했다. 중앙조선협회 이사, 진관 변호사, 게다가 중의원의 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모리야에게 진정과 청원이 쇄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모리야는 경북 출신으로 ‘조선의 자동차왕’으로 불렸던 편동현(片東鉉)으로부터 식산은행, 동척에 대출 알선을 의뢰받았고, 거창의 명승지인 수승대(搜勝臺) 소유권 문제에 관여한다. 특히 수승대는 신씨가와 임씨가가 300년 전부터 치열하게 소유권 쟁탈전을 벌였는데 1928년 국유 하천으로 편입되자 임씨가와 신씨가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총독부 당국에 운동을 전개했다. 신중원의 의뢰를 받은 모리야는 10월 2일 미즈구치 류조(水口隆三) 경남 지사와 면회하여 거창 신씨 문제를 설명하고 내무부장, 관계 과장 등도 모여 검토한 결과 모리야의 주장이 승인되었다. 10월 3일에는 부하인 오노테라 마사오(小野寺昌雄)를 거창에 파견하여 수승대를 시찰·조사시켰다. 나아가 모리야는 사이토 총독을 만나 ‘조선질소의 토지수용문제, 수승대 건’에 대해서 청원했다(『守屋日記』1930.6.9.). 이후 임씨는 원고가 되어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고 1931년 3월에는 신씨가 소유로 판결이 언도되었다.<sup>29</sup> 이후 모리야는 임야

29 「三百年間を係爭たが主人차진 居昌 搜勝臺, 거창 신씨와 임씨 두 문중에서 삼백년을 두고 싸워내려오든 것 慎氏所有로 判決言渡」, 『동아일보』 1931년 3월 7일자.

대장에 수송대를 등록한 후 경상남도에 기증하도록 종용해 수고료로 500원을 받기로 했다.<sup>30</sup>

이처럼 모리야는 조선총독부 시절의 인맥을 이용하여 동척, 식산은행에 대한 대출 의뢰나 수송대 소유권 문제 등과 같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사건'에 개입하여 초기 사무실 운영비를 조달했다.

모리야는 1929년 2월 7일 열린 제56회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케가미 시로(池上四郎) 정무총감에게 지방제도 개정, 토지개량 사업, 소농구제문제, 한·수해 선후책, 교과서 인하 등에 대해서 대(對)정부 질의를 했다.<sup>31</sup> 모리야의 질의는 조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제국의회 '조선통'으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이어 모리야는 1930년 2월 제17회 총선거에서 재선해 몸값을 높이면서 더욱 굵직한 조선의 현안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모리야는 1930년 5월 5일에 열린 제58회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조선의 취인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 방침에 의해 일도양단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이 여러 불상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척무성은 장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무엇인가 연구하고 있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마쓰다 겐지(松田源治) 척무대신은 일본의 취인소에 관한 법규에 준해서 조선에 적용할 법규를 입안 중이라고 답변했다.<sup>32</sup>

이러한 가운데 조선신탁사건이 발발했다. 조선신탁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설립자이자 인천취인소의 주요 주주였던 아쿠쓰 히로시(堆浩<sup>33</sup>)와 구와

30 (연도불명) 10월 15일자 모리야 앞 이원찬 서한(앞의 『守屋榮夫關係文書』, p. 270).

31 「第56回帝国議會 衆議院 予算委員第三分科(大蔵省所管) 第3号 昭和4年2月7日」.

32 「第58回帝国議會 衆議院 予算委員第二分科(内務省及拓務省所管) 第1号 昭和5年5月5日」.

33 아쿠쓰는 1914년 도쿄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미쓰이물산 경성지점에 입사하여 인천 출장소장으로 부임했다. 1921년에는 인천미두취인원의 면허를 획득하고 같은 해 조선신탁회사 취체역에, 1923년에는 월미도유원회사 취체역에 취임했다. 일본의 유명한 투기꾼인



노 겐지(桑野健治)는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구와노가 1930년 4월 19일 ‘반구와노파’인 아쿠쓰, 이케베 다케지(池邊竹次) 등을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검사국에 배임죄로 고소했다. 6월 8일 모리야는 조선신탁의 설립자이자 인천취인소의 주요 주주였던 아쿠쓰 히로시 별장에 초대를 받아 인천취인소 문제의 경위와 그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청취했다(『守屋日記』 1930.6.8.).<sup>34</sup> 같은 날 취인소 합병에 찬성하는 아라이 하쓰타로, 와타나베 사다이치로와도 회담했다. 아쿠쓰는 경성주식현물취인시장(이하 경성취인소)과 인천미두취인소(이하 인천취인소) 합병에 반대하는 ‘반대파’의 기수였는데,<sup>35</sup> 모리야가 합병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sup>36</sup> 당시 담당 검사였던 데라다 가쓰미(寺田克己)가 아쿠쓰와 그와 관련된 회사를 철저히 조사하는 가운데 조선신탁회사로부터 함남 지주 수백 명이 피해를 입은 ‘조선산업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면서 11월 15일 아쿠쓰와 이케베 사장을 비롯한 신탁회사 중역을 전격적으로 구속하였다.

‘조선산업사건’은 조선산업 설립 당시 201명의 지주들이 조선산업의 정관을 포함하여 설립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발기인 등의 권유만을 믿고 토지를 제공했다가 조선산업이 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해 은행에 저당잡혀 경매에 넘겨져 아쿠쓰에게 낙찰된 사건이다.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은 변호사 이승우(李升雨)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인천에 사무소를 둔 조선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등기말소 소송의 대상이 된 함남 토지 면적이 101만 8,546평에 달했다.<sup>37</sup> 모리야는 12월

---

島德藏에 빗대어 ‘작은 시마토쿠’라 불릴 정도로 많은 이런 사업에 개입하였다[김명수(2015), 「제조일본인(在朝日本人)의 신탁회사 설립과 경영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 2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34 1931년 4월 21일자 사이토 마코토 앞 모리야 서한(앞의 「齋藤實關係文書」 1523-35). 서한에는 작년 여름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일기와 대조해 보면 6월 8일로 추정된다.

35 幾川進 「朝鮮信託事件に就て」(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4054).

36 幾川進 「朝鮮信託事件に就て」(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4054).

37 김명수(2015), pp. 28-31.

17일 마쓰테라 다케오(松寺竹雄) 고등법원 검사장을 방문하여 아쿠쓰의 보석을 의뢰했다. 오후에는 서대문형문소에 수감되어 있는 아쿠쓰를 방문하여 변호를 맡기로 하고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신간회 문천지회에서는 총회를 개최하고 조선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sup>38</sup> 등 조선신탁회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서 보석은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모리야는 2월 7일 아라이, 구와노, 오히라 기주로(大平嘉重郎)로부터 취인소문제에 관한 진정을 들었고, 3월 3일에는 경성취인소의 아라이, 구와노, 고스기 긴파치(小杉謹八)를 대동해서 미즈노 렌타로를 방문하여 함께 취인소문제 해결을 의뢰했다. 이후 모리야는 1931년 4월 사이토 총독에게 다음과 같이 아쿠쓰 석방을 의뢰했다.

소생 작년 여름 인천에서 아쿠쓰 군으로부터 인천취인소문제의 경위를 청취하고 당국에서 인천 변영의 선후책을 고려할 성의만 있으면 인천취인소 이전은 굳이 인천 측에서는 구애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 스스로 해결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을 발견한 바 아쿠쓰군이 그 후 수감되었기 때문에 조종이 잘 되지 않게 된 것은 유감입니다.(중략)인천취인소문제와 관련한 아쿠쓰, 이케베, 그리고 그 동생 그 외 여러 사람이 수감된 지 약 반년이 됩니다. 민간에서는 증거 없는 범죄로 구성하려고 한다는 소문입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부디 신속히 복심(覆審)을 결정하셔서 관계자를 석방하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sup>39</sup>

취인소합병문제의 완만한 해결을 위해 합병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아쿠쓰를 석방하도록 진정했던 것이다. 결국 총독이 교체됨으로써 석방로비는 실패로 돌아갔다. 참고로 1931년 5월 20일 조선취인소령이 공포되면서

38 『동아일보』 1929년 2월 4일자.

39 1931년 4월 21일자 사이토 마코토 앞 모리야 서한(앞의「齋藤實關係文書」1523-35).

서 인천취인소의 경성이전이 금지되었다. 결국 이듬해 1월 10일 경성, 인천의 두 취인소는 해산되고 자본을 합병하여 조선취인소가 신설되었고, 1월 12일부터 인천취인소는 조선취인소 인천지점이 되었다.

이처럼 모리야는 경취, 인취 합병문제에 개입하여 두 취인소의 원만한 합병을 도모했다. 당시 중앙조선협회는 합병찬성과와 반대파 양쪽 진영으로부터 격렬한 진정을 받아 국외중립을 지키고 있었지만<sup>40</sup> 모리야는 경성 취인소 간부의 진정을 미즈노에게 알선하는 등 원만한 합병을 지지했다.

한편, 1931년 12월에 아쿠쓰가 보석 석방되자 모리야는 “작년 겨울 수감되고 나서 1년여다. 그 죄는 결정되지 않았고 게다가 몇몇 의문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실로 인권 유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감상을 일기에 적고 있다. 아쿠쓰는 “사건 돌발 이후 많이 배려해 주시고 특히 일부로 왕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석이 허가되었기 때문에 부디 안심해 주시고 과거 1년간의 호의와 진력에 대한 감사는 필설로 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sup>41</sup> 이후 모리야는 아쿠쓰의 간곡한 부탁으로 1932년 12월부터 전술한 ‘조선산업회사사건’과 관련된 배임사건 변론을 맡았다. ‘조선산업회사사건’은 어용신문인 『매일신보』마저 유령회사 조선산업회사를 창립하여 “악착한 수단으로 향촌 지주를 속였다.”라고 비판하였다.<sup>42</sup>

1933년 2월 21일에 재판이 재개되자 모리야는 오기 마사노리(荻昌德) 경성지방법원 재판장을 만나서 앞으로의 심리에서 공판심리주의를 실행해 달라고 의뢰했다. 22일에는 공판에서 아쿠쓰가 해야 할 조치와 공술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모리야는 4개의 질문을 재판장에게 의뢰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려줬다. 공판심리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재판장과 뒷거리를 했던 것이다.

40 李炯植(2007), 「戰前期における中央朝鮮協會の軌跡:その設立から宇垣總督時代まで」, 『朝鮮學報』 204, p. 115.

41 1931년 12월 10일자 모리야 앞 堆浩 서한(守屋-86-347-48).

42 『매일신보』 1932년 7월 8일자.

2월 25일에는 방문객을 사절하고 “피고 등을 무죄로 해서 조선 사법권의 위신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생각하여 변호 원고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2월 28일 검사가 아쿠쓰 징역 2년, 이케베, 양(梁)은 1년을 선고하자 모리야는 피고 무죄의 변론을 역설했다. 재판장 이하 매우 긴장해서 들어주었고 피고 등은 처음으로 광명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모리야도 “대역을 완수해서 어깨가 가벼워졌다고 느꼈다.”라고 감상을 적고 있다. 사실상 첫 재판이자 세상의 주목을 받는 재판 변론이었기 때문에 증압감이 컸을 것이다. 조선토목건축협회로부터 “지난번의 아쿠쓰 사건 변론은 현재 조선 사법당국의 편파를 각성시키는 변론”<sup>43</sup>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동 협회 이사 오히라는 “아쿠쓰군에 관한 귀하의 변론은 당지 법조계에서 매우 유명하게 되어 근래의 명변론으로 평판이 났습니다.”<sup>44</sup>라고 반응을 전했다. 결국 제 1심에서 사기, 배임은 무죄 판결이 나고 상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다. 4월 7일 아쿠쓰로부터 수입료로 500엔을 수령하여 400엔은 사무소에 건넸다. 모리야는 일기에 “사무소 유지도 곤란했는데, 이 금액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라고 적고 있다. 모리야는 1933년 일기장 마지막에 “변호인으로서의 아쿠쓰군 변론으로 명성이 일시 높아져 조선의 토목담합사건을 의뢰받게 되었다.”라고 남기고 있다. 1934년 5월 31일 열린 고등법원에서는 상법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700원에 처해졌는데, 모리야는 “배임이 사라지고 징역형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행운이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처럼 모리야는 전관 변호사로서 재판관들과 사전에 접촉하여 아쿠쓰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냈다. 토지를 갈취당한 조선인들을 외면한 아쿠쓰 재판 변론을 통해서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얻었을 뿐 아니라 중의원 의원 사무실 유지비도 마련할 수 있었다. 아쿠쓰 재판에서 사실상 승리함으로써 모리야는 조선에서 전관 변호사로서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

43 1933년 3월 6일자 모리야 앞 朝鮮土木建築協會 서한(守屋-83-12-26).

44 1933년 3월 12일자 모리야 앞 大平嘉重郎 서한(守屋-84-22-12).

다. ‘참 정치, 명랑한 정치, 즐거운 정치’(まことの政治・あかるい政治・たのしい政治)를 표방하면서 정치에 뛰어들었던 모리야는 후술하는 함흥수력전기처럼 점점 조선에서 검은 ‘이권 정치’에 몸을 맡기게 된다.

## 5. 함흥수력전기와 모리야

산미증식계획 갱신계획의 수행을 위해 조선 북부에 대규모 수리조합이 창설되었다. 그 가운데 함흥수리조합은 창설 및 공사 실시과정에서 살상사건까지 이르는 식민지 폭력을 동반했다. 홍창극의 연구에 따르면 수리조합 창설을 주도한 것은 함경남도 도 당국이었고 여기에 협조했던 조선인들은 조선총독부나 함경남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었다. 창립위원장은 중추원 참의 홍성연(洪聖淵)<sup>45</sup>이었고, 부위원장 김하섭(金夏涉)은 함남도평의원이자 국민협회 평의원이었다. 신간회 함흥지부를 비롯하여 조선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함남도청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수리조합 창설을 관철시켰다. 창설 후 공사 실시과정에서는 청부업자를 통한 살상사건까지 이르는 폭력이 행사되었고 최종적으로는 토지수용령이 발표되어 조선인 토지가 강제 수용되었다.<sup>46</sup> 결국 함흥수리조합은 1929년 4월 설립인가를 받아 1930년에 완공되었다.

수리조합이 완공되자 ‘조선의 전기왕’으로 불리는 대흥전기의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는 관개용수 취입구에 수로를 설치해 그 낙차를 이용한 수력전기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sup>47</sup> 오구라는 1930년 11월 22일

45 참고로 홍성연은 1930년 12월 30일에 모리야에게 1통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

46 洪昌極(2021), 「植民地期朝鮮北部における水利組合事業の歴史的 성격: 咸興水利組合の創設過程を事例として」, 『人民の歴史學』 226, 東京歴史科學研究会.

47 오구라의 함흥수력전기 로비에 대해서는 이형식(2018), 「‘조선의 전기왕’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와 조선사회」, 『동양사학연구』 145, 동양사학회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사료를 보충하여 모리야의 역할을 상세히 논하겠다.

모리야의 도쿄사무실을 방문하여 합흥수력전기회사 설립에 조력해 달라고 의뢰했다. 11월 25일에는 오구라는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중역이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조건을 승낙한 모리야는 11월 27일 조선총독부 출장소를 방문하여 야마모토 사이조(山本犀藏) 체신국장을 만나 합흥수력전기 설립을 간담했다.<sup>48</sup> 1930년 10월까지 함남 내무부장에 재직했던 마쓰시타 요시사부로(松下芳三郎)는 “오구라씨의 건 승낙하신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방해가 있을지 모르니 이점 충분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sup>49</sup>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후 모리야는 오구라로부터 조선 출장을 요청받아 12월 12일에 도쿄를 출발했다.<sup>50</sup> 13일 사이토 총독을 만나 30분 정도 간담하고 14일에는 함흥으로 향했다. 함남 도청에서 세키미즈 다케시(關水武, ‘다이쇼8년조’) 지사, 간쇼 요시쿠니(甘蔗義邦) 내무부장 등을 만나고 아쓰미 요시자네(渥美義胤)와 합흥수력전기설립을 논의했다. 참고로 미야기현 출신의 아쓰미는 경기도 지방과장을 퇴직하고 1929년 5월부터 합흥수리조합 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1930년 12월 18일 수뢰 혐의로 체포되었다.<sup>51</sup> 모리야는 시카노 히로시(鹿野宏) 경기도 경찰부장에게 보석을 의뢰하여 12월 28일 보석되었다. 모리야는 합흥수리조합의 수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함흥의 ‘오구라파’인 마쓰무라 에이사부로(松村榮三郎)<sup>52</sup>로 하여금 동 조합의 조합장 홍성연과 접촉하여 교섭하게 했다. 교섭이 결말나지 않자 12월 15일 직접 홍성연 조합장을 만나 부조합장 김하섭, 조합이사 아쓰미에게 만사를 일임하기로 합의했다. 마쓰무

48 참고로 야마모토는 내각 법제국 참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24년 조선총독부 심의실 참사관으로 부임하여 모리야 서무부장과는 짧게나마 총독 관방에서 함께 근무했다.

49 1930년 12월 4일자 모리야 앞 松下芳三郎 서한(守屋-7-147-7).

50 1930년 12월 3일자 모리야 앞 小倉武之助 서한(守屋-10-319).

51 『朝鮮新聞』 1930년 12월 29일자.

52 마쓰무라는 1922년 함남상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함남도평의회 의원, 함흥부협의회 의원을 역임했다[畑本逸平 編(1927), 『(咸鏡南道)事業と人物名鑑』, 咸南新報社, p. 86].

라와 시시쿠라 로쿠조(穴倉六二) 대흥전기 합남지점장이 수로사용료 문제를 협의했다.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자 모리야가 중재하여 7만 엔을 제시하여 “1년 반에 걸친 현안은 약 6시간 사이에 해결되”었다고 합남도청 수뇌부에 결과를 보고했다. 교섭 대상이 자신이 후원했던 국민협회의 김하섭과 보석 석방시켰던 아쓰미였기에 협상이 순조로웠을 것이다. 12월 17일 오구라는 ‘이틀 전의 성과’를 기뻐하고 모리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같은 날 모리야는 야마모토 체신국장을 방문하여 앞으로의 진력을 부탁했다.

모리야와 마쓰무라의 교섭·중재가 성과를 발휘하여 이듬해 1월 10일 함흥수리조합장 홍성연과 히다 겐지로(肥田玄次郎) 외 3명 사이에 취입구의 수리권을 7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sup>53</sup> 계약 성립이 알려지자 함흥상공회는 함흥전기부영기성회를 조직하고 회사 설립에 반대했다. 기성회는 함흥부윤, 합남지사, 체신국에 진정하고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대흥전기의 부당한 이익추구를 비판하면서 전기부영을 결의했다. 이후 상경위원을 임명하여 총독부 내무국에 진정하는 한편 오구라에게도 장문을 편지를 보내 반성을 촉구했다.<sup>54</sup> 이에 오구라는 1월 18일자 서한으로 “함흥수력 전기는 최근 지역 유지 사이에 반대운동이 일어나 이것을 저지하려고 분주합니다. 전기사업 경영 허가 신청을 시급히 할 필요가 있어 전보로 양해를 바랍니다.”라고 모리야에게 전기사업이 허가되도록 진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sup>55</sup> 기성회가 전망위로 진정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오구라는 모리야에게 “함흥의 전기문제는 이후 부영기성회 측에서 계속 여러 운동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저번도 위원들을 경성에 보내어 당국에 진정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는 상당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 시급히

53 1931년 1월 12일자 모리야 앞 마쓰무라 에이사부로 서한(守屋-86-359-13). 『釜山日報』에 따르면 취입구 수리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히다 이외에 모리야, 마쓰무라 에이사부로라고 한다(「咸興水組水利權に絡み咸興電氣府營問題起る」, 『釜山日報』 1931년 1월 20일자).

54 『釜山日報』 1931년 2월 4일자.

55 1931년 1월 18일자 모리야 앞 오구라 서한(守屋-86-359-13).

내무국장에게 조치를 취해 주도록” 의뢰했다.<sup>56</sup> 기성회의 전기부영 운동이 더욱 거세지자 모리야는 사이토 총독에게 “저번에 들으신 함흥수력전기문제는 그 후 부민 측의 부영운동이 일어나 정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함흥부민에게 저렴한 전등 전력을 공급하려는 것 이외에 다른 뜻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구라 씨로부터 언질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민심의 귀추를 헤아려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sup>57</sup>라고 사건 해결을 의뢰했다. 함흥의 상공업자들은 조선총독부, 척무성 등에 진정하고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전기부영을 주장하면서 함흥수력전기 설립을 극력 반대했다.<sup>58</sup>

이처럼 모리야는 오구라의 의뢰를 받아 함흥수리조합의 수리권을 매수하여 수력발전회사를 설립하는 데 적극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사이토 총독, 조선총독부 내무국, 체신국, 함남도청과 접촉하여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 모리야의 ‘식민지 로비’는 ‘정경관(政經官) 유착’을 통한 ‘식민지 개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모리야의 함흥수력전기설립 로비(‘식민지 로비’)는 함흥 상공업자 및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운동에 봉착해 좌절되었다.

## 6. 조선토목담합사건과 모리야

1932년 6월 초 혼마치경찰서가 실화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경성부 내무과 영선계장 고마다 도쿠사부로(駒田徳三郎)가 토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가 거듭되면서 금품수수사건은 소위 ‘경성 토목담합사건’으로 확대되어 갔다.<sup>59</sup> 6월 22일 우가키 총독은 기자단과 가

56 1931년 2월 4일자 모리야 앞 오구라 서한(守屋-86-355-18). 참고로 이마무라 다케시(今村武吉) 내무국장은 도호쿠출신으로 모리야의 2高, 도쿄제대 선배다.

57 1931년 4월 21일자 사이토 앞 모리야 서한(앞의「齋藤實關係文書」1523-35).

58 이형식(2018), p. 191.

59 토목담합사건에서는 와타나베, 아라이, 진나이 등 조선을 대표하는 거물급 토목업자들



진 정례회견에서 고마다 사건에서 발단된 토목담합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표명했다.<sup>60</sup> 같은 날 혼마치경찰은 조선상공회의소 회두 진나이 모키치(陳內茂吉)를, 23일에는 황해사 사장 와타나베 사다이치를 검거했고 7월 1일에는 조신토목건축협회 회장 아라이 하쓰타로가 혼마치경찰서에 출두했다. 아라이가 소환되자 총독관방 임시국세조사와 촉탁 마쓰이 분스케(松井文輔)는 모리야에게 “조선의 문제 중 하나인 토목담합사건은 확대해서 진나이 모키치, 와타나베 사다지로씨도 본 적이 없는 모습으로 수일 전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마도 공판 변호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나이와 와타나베 검거 소식을 전하면서 신문 스크랩을 보냈다.<sup>61</sup> 이후 경성, 평양, 부산, 충남, 전남, 함남북 등 각지 청부업자 143명이 검거되었는데 조선 토목청부업자의 대부분이 사건에 연루되었다.<sup>62</sup> 8월 8일 조선시찰에서 돌아온 바바 에이이치(馬場鐵一) 중앙조선협회 전문이사는 모리야에게 ‘전기공영 연기, 담합사건 적발, 제국생명확장운동 등 조선통치의 결함’을 지적했다(『守屋榮夫日記』1932.8.8.). 이후 아라이와 나가토구미(長門組) 대표 고토 에이조(五都榮藏)가 예심판사의 소환을 받아 9월 1일 서대문형무소에 수용되는 등 사건은 확대일로였다. 아라이가 수감되자 토목협회 전문이사 오히라 기주로(大平嘉重郎)는 모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이 구속된 ‘조선 초유의 대의옥사건’이었다. 이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최병택(2015), 「경성토목담합」 사건을 통해 본 일제하 토목 청부업계의 담합 관행, 『역사학 연구소: 최병택(2015), 「1920년대 초~1930년대 전반기의 하천개수사업과 토목청부업 비리」, 『사학연구』 118, 한국사학회; 도리우미 유타카(2019), 『일본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 지식산업사; 고태우(2019), 「1920년대 말~1930년대 전반 토목담합사건 연구」, 『역사문제연구』 23-2, 역사문제연구소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총독부와 토목업자들이 협조하면서 토목협회가 업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시기별 기항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토목담합사건은 총독부 vs 토목업계만의 관계가 아니라 총독부 사범부, 일본 내 조선관계 정치세력 등이 관여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일본의 정치세력들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루겠다.

60 『京城日報』1932년 6월 23일자.

61 1932년 7월 1일자 모리야 알 松井文輔 서한(守屋-83-3-33).

62 児玉琢口述·竹下留二(1933), 『朝鮮の談合』, 竹下留二.

이번 조선토목업계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새삼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라이 회장의 신변을 시종 배려해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9월 1일 오후 4시 소환과 동시에 수감되었고, 와타나베 사다이치로 씨도 도쿄에 출장 중이었는데 다시 소환되어 9월 7일 경성으로 돌아와 다음 날 8일 오후 4시 재판소에 출두하자 즉시 수용되었습니다. 사건은 황해사 대 와타나베, 아라이구미 대 아라이의 내부관계에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뭐라고 하기 어렵고 결국 사건 전체로 봐서 일절 운동같은 일을 하지 않고 방관하는 편이 득책일 것입니다. 어쨌든 사건은 앞으로 상당한 시일을 요하리라 생각되므로 소생은 다음 달 하순 상경할 예정이니 상세한 이야기는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sup>63</sup>

오히라는 이 사건이 ‘황해사 대 와타나베, 아라이구미 대 아라이’의 내부관계를 고려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고 했다. 당시 가사이 겐타로(笠井健太郎)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은 “아라이 하쓰타로 관계 2명 이외 5명 합계 7명 정도는 보석이 곤란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보석할 예정이고 7명은 풀어주지 않을 방침”이고, “일본의 담합은 3% 내지 5% 정도로 일종의 공제 조합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조선에서는 30% 정도까지 행해져 업자 중에는 3년도 공사를 하지 않고 담합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공제조합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주장이 많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경방침을 고수했다.<sup>64</sup> 이후 토목협회의 의뢰를 받은 모리야는 10월 3일 경성에 도착하여 이튿날 오히라의 안내로 토목협회를 방문하여 간부와 협의했고, 4일에는 아라이, 와타나베 집을 방문하여 가족을 위문했다. 10월 10일 오히라로부터 아라이 보석에 관한 운동을 의뢰받아 승낙했다.

경성에서 돌아온 모리야는 본격적으로 아라이 구명 로비에 착수했다.

63 1932년 9월 9일자 모리야 앞 大平嘉重郎 서한(守屋-83-11-12).

64 「朝鮮土木事件ニ対スル笠井法務局長ノ回答要領」(일본국회도서관헌정자료실 소장 「山岡萬之助關係文書」).

10월 13일 토목협회의 명예회원이기도 한 미즈노 렌타로를 찾아가 ‘조선통치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아라이 석방을 상담했다. 미즈노는 가사이 법무국장, 요코타 고로(横田五郎) 전 법무국장에게 편지를 써 주기로 했다. 14일에는 동양협회를 방문하여 미즈노에게 담합사건 서류를 보여 주고 진력해 줄 것을 의뢰했다. 15일에는 사건 담당자인 미즈노 시게카쓰(水野重功)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게 편지를 보내는 한편 사이토 총리 관저를 방문하여 조선통치의 실상 및 아라이 등의 석방을 배려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이 회합에는 미즈노 전 정부총감과 조선총독부시절 같이 근무했던 시바타 겐사부로(柴田善三郎) 내각서기관장이 동석했다. 18일에는 일본구락부에서 정우회 국회의원 20여 명이 모인 회합에서 우가키 총독에 대해 보고했는데 ‘공명·동감’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정우회의 ‘반(反)우가키’ 정서를 엿볼 수 있다. 19일에는 도쿄변호사협회 회장인 아마오카 만노스케(山岡萬之助)<sup>65</sup>를 방문하여 조선 담합사건을 협의했는데, 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했다. 미즈노와 모리야가 접촉한 가사이, 요코타 등은 3·1운동 이후 미즈노가 조선총독부 사법부 쇄신을 위해 일본에서 발탁한 사법 관료들이었다.<sup>66</sup>

이처럼 모리야는 인맥을 총동원하여 조선총독부 사법부, 내각, 중의원 방면으로 구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의 구명운동이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 10월 15일에는 와타나베, 호시데 마사오(星出正雄), 진나이 등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진나이와 와타나베가 풀려나자 오히라는 같은 날 모리야에게 서한으로 “도쿄의 일류 청부업자가 스즈키 정우회 총재에 의뢰해서 그 결

65 아마오카는 일본법률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성에 들어가 도쿄지방재판소 판사, 검사, 사법성 참사관, 사법성 감옥국장, 형행국장, 형사국장 등 사법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다가 다니카 내각 시기에는 스즈키 기사부로(鈴木喜三郎) 내무대신 아래에서 경보국장 등에 취임했다. 퇴직 후에는 귀족원 의원, 도쿄변호사회 회장, 관동장관 등을 역임했다[戰前期官僚制研究會 編(1981), 『戰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學出版會, p. 242]. 참고로 아마오카의 경보국장 시절 모리야는 내무성 사회국 사회부장으로 근무했다.

66 李炯植(2013), pp. 110-111.

과 스즈키 총재로부터 야마오카 만노스케 씨에게 이야기하고 야마오카의 메신저로서 오카다 쇼사쿠(岡田庄作) 변호사가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인지 아닌지는 물론 불분명하지만 이때 급속하게 모두 석방되는 경우는 전에 의뢰드린 건에서 선생의 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 점이 적어 이 점이 유감입니다.”라고 전하면서 사이토 총리 쪽에 힘써 달라고 의뢰했다.<sup>67</sup> 참고로 1932년 1월에 일본토목건축청부업자연합회 경성지부장에 취임한 아라이 하쓰타로는 과거 정우회 다카오카(高岡) 지부의 요청을 받아 제15회 중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만큼 정우회와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sup>68</sup> 토목협회는 정우회 커넥션을 이용하여 석방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sup>69</sup> 모리야는 담합사건은 법정 변론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교섭을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10월 22일 아라이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오히라는 우가키 총독의 도쿄 출장 전후로 도쿄에 건너가 상세히 면담한 후에 대책을 협의하고, 그 이전까지는 제3자와 교섭하지 않도록 모리야에게 요청받았다.<sup>70</sup> 10월 25일 모리야는 미즈노가 가사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진언’을 받아서 이를 타이핑해서 오히라에게 송부했다. 이후 11월 17일 도쿄로 출장을 온 오히라와 조선토목건축협회의 신(新)회장 마에노 사다키(前野定喜)로부터 ‘정치적인 취급’과 ‘사법적인 수속’을 의뢰받아 정식으로 사건을 수입했다.

67 1932년 10월 15일(추정)자 모리야 앞 大平嘉重郎 서한(守屋-83-5-19).

68 김명수(2011),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토목청부업자 아라이 하쓰타로(荒井初太郎)의 한국진출과 기업활동」, 『경영사학』 26, 경영사학회, p. 326.

69 쌀소동 이후 1919년 11월에 사회주의운동 박멸과 노동운동 억제를 목표로 도쿄나미 내 무대신의 앞선으로 협객, 토목청부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大日本國粹會를 결성했다. 이후 스즈키 기사부호가 총재에 추대되는 등 대일본국수회는 정우회계열의 원외단적 존재가 되었다. 조선토목건축협회 간부를 맡았던 와타나베 사다이치로가 國粹會 조선지부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토목협회와 정우회와의 유착관계를 엿볼 수 있다[松浦正孝(2010), 『大東亞戰爭』はなぜ起きたのか—汎アジア主義の政治經濟史』, 名古屋大学出版会, pp. 424-425].

70 1932년 10월 24일자 모리야 앞 大平嘉重郎 서한(守屋-83-1-14).

12월 6일 경성에서 피고 및 변호사들과 회의하여 변론 준비 수속을 협의하고 12월 7일에는 요코타 고로, 미즈노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오기 마사노리(荻昌徳) 경성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만나 여러 사정을 조사했다. 12월 8일에는 총독부에 가서 가사이 범무국장을 방문해 재료를 부탁하고 고등법원에 가서 후카자와 신이치로(深沢新一郎) 고등법원장, 가사이에게 경의를 표하고 의견을 들었다. 10일에는 오카모토 시토쿠(岡本至徳) 경성복심법원 검사장을 방문하고 담소했다. 12월 11일에는 토목협회에서 경성 체재 중에 조사한 토목담합사건의 윤곽, 정치적 사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와타나베 사다이치로는 신속히 개인 변호를 해 주기를 신청했다. 도쿄로 돌아온 모리야는 12월 29일 사이토 총리를 만나서 조선통치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아마 이때 담합사건도 이야기했을 것이다. 참고로 오히라와 가지마구미(鹿島組) 경성출장소 주임 운노(海野斐雄)는 11월 22일 사이토 총리를 만나 토목담합사건을 진정했다.<sup>71</sup> 모리야는 1932년 일기장에 자신에게 있었던 주요 사건을 나열하면서 “조선토목담합사건의 의뢰를 받아 사무소가 순조롭게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모리야는 12월 29일 토목협회로부터 5,000엔을 송금받았다.<sup>72</sup>

모리야는 1933년에 들어서서 오히라에게 의뢰받은 ‘정치적인 취급’과 ‘사법적인 수속’ 즉 정치 로비와 사법 변호 두 측면에서 담합사건에 임했다. 1월 초에 「우가키 총독 치하의 조선」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우가키 총독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사이토마코토관계문서」(齋藤實關係文書)에 수록되어 있는 이 문건에서 모리야는 우가키의 고향인 오카야마(岡山) 출신들과 자신의 사위 등을 발탁한 총독부 인사의 난맥상, 우가키 총독의 중앙 정치에 대한 야망, 사법관료의 동요 및 반감, 민심의 이반을 들면서 우가키 총독의 조선통치가 야마나시 총독의 그것보다도 ‘나쁜 정치’(惡政治)라고 비판

71 「齋藤實日記」1932년 11월 22일자.

72 1933년 1월 10일자 모리야 앞 大平嘉重郎 서한(守屋-85-5-23).

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토목담합사건 적발을 둘러싸고 재조일본인의 반감이 거세져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73</sup> 모리야는 1월 하순에 야마모토 곤노호(山本権兵衛), 기요우라 게이고(清浦奎吾) 전 수상,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 내대신,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麒一郎) 추밀원 부의장, 이치키 기도쿠로(一木喜徳郎) 궁내대신 등 정계의 주요 인물에게 「우가키 총독 치하의 조선」을 배포하여 우가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나갔다.

이후 모리야는 2월 2일 제64회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토목담합사건’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대심원 판결과 조선의 고등법원 판결이 일치하지 않아 조선의 제1류 실업가 87명이 피의자로 체포되어 오랜 기간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 척무대신은 일본과 조선의 판결이 다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재 사법대신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sup>74</sup> 3월에 담합사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담합사건 변호에 착수했다. 그런데 모리야와 토목협회 사이에는 변호료 정산에서 의견차가 생긴 것 같다. 아라이 하쓰타로는 제1심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모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변호 비용을 통지했다.

미리 의뢰를 부탁드린 담합사건도 드디어 10월 31일부터 공판이 開廷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협의 차 당 협회 마에노 전문이사가 하루 이틀 전에 상경했으니 회견한 후에 만사 지도를 받을 것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보내 주신 서면을 봤는데 귀하對 당 협회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경성에 오실 때 조사 수당 및 여비로 천 엔 조선히텔에서 야마자키 이사로부터 송금

73 守屋榮夫, 「宇垣總督の下に於ける朝鮮統治」(앞의 「斎藤實關係文書」 193-18).

74 「第64回帝國議會 衆議院 予算委員會 第7号 昭和8年2月1日」.

12월 29일 제1은행 경유 담합 및 담합사건 변호 보수금

올해 19일 도쿄에서 千田 이사로부터 변호 보수금 内金으로 2,000엔 증정<sup>75</sup>

즉 변호 보수금으로 3,000엔, 조사비용으로 1,000엔을 증정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1932년 12월 29일 받은 돈의 성격을 둘러싸고 양자는 의견을 보였다. 모리야는 이를 ‘정치운동자금’이라고 했고, 토목협회는 착수금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아라이와 오히라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守屋榮夫日記』1933.9.19.). 즉 모리야는 담합사건 초기에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면서 조선총독부 사법당국, 내각에 구명 로비를 했기 때문에 정식 변호사료가 아니라 ‘정치운동자금’으로 파악했고 착수금을 별도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0월 말에 조선에 건너가서 193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이틀간에 걸쳐 9시간의 변론을 했다. 또 12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경성일보』(京城日報)에 「담합사건변론」(談合事件辯論)을 연재하여 검사의 담합사건에 대한 논고를 비판했다. 12월 18일에는 스즈키 기사부로(鈴木喜三郎) 정우회 총재를 방문하여 담합사건을 논의하였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토목업자 대다수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모리야는 1933년의 한해를 회상하면서 “변호인으로서의 아쿠쓰 군의 변론으로 명성이 일시 올라가서 조선 토목담합사건을 의뢰받기에 이르렀다”, “변론은 호평을 받았고 변호인으로 세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무실 운영이 편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모리야는 전관 변호사이자 중의원 ‘조선통’으로 조선의 각종 현안에 개입하면서 조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토목담합사건 관계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조선총독부 사법부, 사이토 수상, 제1당인 정우회 등을 통해서 진방위 로비를 펼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조선에서

— www.kci.go.kr

75 1933년 9월 16일자 모리야 앞 荒井初太郎 서한(守屋-84-25-3).

의 변호사 활동과 각종 현안 해결에 대한 진정과 알선의 창구 역할을 통해서 모리야는 정치활동 자금을 마련했다.

## 7. 나진토지수용문제와 모리야

만주사변으로 관동군의 오랜 염원이었던 길회선[함북 회령과 중국의 길림(吉林) 사이를 잇는 철도] 건설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 길회선의 중단항으로 나진항이 결정되고 만철이 철도건설을, 조선총독부가 시가지계획을 담당하게 되었다. 중단항 발표 전부터 투기로 인해 토지 가격이 폭등했다. 길회선 중단항을 둘러싸고 청진과 웅기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sup>76</sup> 1929년 9월 마쓰무라 마쓰모리 토지개발부장이 모리야에게 “도호쿠벌의 우세를 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선의 불량 이권상들에게 부추겨져 종종 출원하여 현재 나진에는 광대한 토지 이권을 쥐고 있습니다.”<sup>77</sup>라고 전하고 있는 것처럼 투기꾼들은 토지를 사들이고 있었다.

만주사변 이후 길회철도 건설이 급물살을 타고 1932년 철도 중단항이 나진으로 결정되자 토지 브로커들이 개입하면서 토지 등귀를 가속화시켰다. 1932년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조선총독부와 만철이 나진개발을 협의하여 만철은 지가 등귀로 토지매수가 곤란하다고 예측하고 총독부가 토지를 매수하도록 요청했다. 만철은 현지에 사원을 파견하여 토지매수에 착수했는데, 토지수용지역은 608필지, 67만 2,000평이고 관계인은 245인에 달했다. 지가 산정을 둘러싸고 지주들과 만철 간의 분규가 계속되었다.<sup>78</sup>

76 송규진(2014), 「함경선 부설과 길회선 중단항 결정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 『한국사학보』 75, 고려사학회.

77 1929년 9월 7일자 모리야 앞 마쓰무라 마쓰모리 서한(守屋-6-56-48-6).

78 이에 대해서는 加藤圭木(2017), 『植民地期朝鮮の地域変容: 日本の大陸進出と咸鏡北道』, 吉川弘文館를 참조할 것.



함북지사의 재정(裁定)에 불복하여 북선토지회사사장 메가타(目加田助二郎)와 함북 도평의원 마스다 다이키치(増田大吉)를 비롯한 일본인 부채지주 대표들은 총독부 당국 및 만철에 정당한 지가로 수용해 줄 것을 진정했다.<sup>79</sup> 총독부 당국 및 만철에 대한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주 단체는 변호사이자 중의원 의원인 모리야에게 지주에게 유리하게 지가를 재정해 주도록 의뢰했다.

이러한 가운데 1934년 1월 8일 모리야는 쇼시로부터 나진 토지수용 이의신청을 의뢰하는 장문의 전보를 받고, 조사한 후에 전망이 있으면 받겠다고 답장했다. 1월 17일 함북 도평의원 홍종화(洪種華), 메가타는 모리야를 방문하여 토지수용 사건을 맡아 달라고 의뢰했다. 모리야는 착수금 1,000엔, 여비 일당은 의뢰자 부담으로 하고 보수는 이익의 1할이라는 조건으로 사건을 맡았다. 모리야는 나진의 토지소유자 7인의 의뢰를 받아 1월 24일 「나남토지수용에 대한 불복 보충서」(土地収容ノ裁定ニ対スル不服申立補充書)를 우가키 총독에게 우편으로 송부했다. 도미나가 후미카즈(富永文一) 함북지사가 내린 재결을 취소할 것, 만철은 불복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불할 것, 만철은 수용예정지와 같은 면적가격의 나진에 있는 토지를 불복신청인에게 제공할 것, 수용지 예정지에 있지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수용을 면제할 것, 장래 불필요한 토지는 수용가격으로 피수용자에게 환부할 것을 탄원했다.<sup>80</sup>

2월 6일에는 하야시 히로타로(林博太郎) 만철총재에게 나진토지수용에 대한 진정 서류를 발송했다. 4월에 조선으로 건너와서 4월 6일 마스다, 메가타로부터 총독부의 의향을 듣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우시지마 쇼조(牛島省三) 내무국장, 신바 고헤이(棒葉孝平) 토목과장을 방문하여 간담

79 「國家的大事業에 吝嗇함은 아니다 滿鐵當局態度不當 羅津土地紛爭問題 地主側意見」, 『매일신보』 1933년 12월 5일자.

80 広瀬貞三(2010),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羅津港建設と土地収用令」, 『環日本海研究年報』 17, 新潟大學大学院現代社會文化研究科環日本海研究室, pp. 36-37.

을 가졌는데, 약간의 여지가 있다는 인상을 받은 것 같다. 4월 8일에 홍종화, 쇼시와 함께 현지조사를 위해 나진으로 출발했다. 4월 9일부터 4월 11일 까지 수용지, 항만건설 상황을 시찰하고 도미나가 함북지사를 방문하여 삼각지역 아래 만평의 해제를 요청했다. 지사도 호의를 가지고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4월 12일 경성으로 돌아와서 우시지마 내무국장, 신바 토목과장,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嘉一) 사무관을 만나서 나진 시찰 상황을 전하면서 삼각지역 아래 땅의 해제를 요구했다.

6월 말부터는 만철 관련자와 접촉했다. 6월 22일에는 핫타 요시아키(八田嘉明) 만철 부총재를 만나 나진토지문제에 대해서 진정했고, 이튿날 오부치 미키(大淵三樹) 이사를 만나 나진 토지문제의 종래 경과를 이야기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모리야의 알선으로 총독부의 조정안이 만들어졌지만 만철은 일축하고<sup>81</sup> 불응하는 한편 함북지사에게 토지수용령을 발령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모리야는 9월 4일 메가타로부터 토지수용문제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12월 17일에는 제국의회 출석을 위해 도쿄로 건너온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清徳) 정무총감을 방문하여 ‘쌀 문제’와 나진 토지수용 문제에 대해서 간담했다.

결국 우가키 총독은 1935년 2월에 토지문제에 대해서 함북지사가 제출한 금액에 비해서 증액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것으로 만철, 지주 쪽 모두 불만은 있었지만 나진 토지문제는 종결되었다. 이처럼 모리야는 나진토지수용문제에서 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를 조선총독부, 만철 수뇌부에 전달하여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다. 조선총독부도 제국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정우회의 ‘조선대의사’이자 1934년 7월 농림정무차관에 취임해 미곡통제위원회 위원이 된 모리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81 「나진만철용지가 총독부 조정도 부조」, 『조선일보』 1934년 8월 26일자.

## 8. 맺음말

모리야는 조선 재임 시절에는 조선 총독의 ‘문고리 권력’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1924년 조선을 떠났어도 조선에 남아 있던 ‘내무성 인맥’(‘다이쇼8년조’)과 동북지역 인맥을 배경으로 조선에 영향력을 미쳤다. 중의원 의원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정치단체인 대일본소화연맹의 조선지부를 설치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지지세력을 규합하는 데 이용하였다. 조선지부에 가입한 재조일본인과 국민협회 회원, 관료 등의 조선인들은 모리야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출세를 지향했다. 모리야와 재조일본인 및 ‘친일조선인’ 사이에는 후견인·피후견인 관계가 성립했던 것이다. 모리야는 전관 변호사로서 자신의 ‘조선인맥’을 이용하여 굵직한 사건을 맡았고 재조일본인과 조선인 유력자들의 ‘식민지 로비’(colonial lobby)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조선사회와 조선 현안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우회 시절 모리야가 관여한 조선산업사건, 함흥수력전기 설립, 조선토목담합사건, 나진토지수용문제 등을 사례로 식민지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구명해 보았다.

모리야는 전관 변호사로서 재판 중에 재판관들과 사전에 접촉하거나 조선총독, 총리, 제1당인 정우회를 동원하여 조선산업사건, 조선토목담합사건 등의 재판을 의뢰자에게 유리하게 이끌었다. 토지를 갈취당한 조선인들을 위면한 아쿠쓰 재판 변론을 통해서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얻었을 뿐 아니라 중의원 의원 사무실 유지비도 마련할 수 있었다. 아쿠쓰 재판에서 사실상 승리함으로써 모리야는 조선에서 전관 변호사로서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재조일본인 유력자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했다.

한편, 함흥수력전기 설립이나 나진지토지수용문제 등과 같은 조선 이권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만철, 지방정부 등과 접촉하여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 비록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로 좌절되었지만 함흥수력전기 설립을 위한 모리야의 '식민지 로비'는 '정경관(政經官) 유착'을 통한 '식민지 개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모리야는 전관 변호사이자 중의원 '조선통'으로 조선의 각종 현안에 개입하면서 조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조선에서의 변호사 활동과 각종 현안 해결에 대한 진정과 알선의 창구 역할을 통해서 모리야는 정치활동 자금을 마련했다. 일본에서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과 후원자를 조선에서 조달했던 것이다. '참 정치, 명량한 정치, 즐거운 정치'를 표방하면서 정치에 뛰어들었던 모리야는 점점 조선에서 검은 '이권 정치'에 몸을 맡기게 된다. 1935년 이후 조선에서 모리야의 활동은 줄어들었다. 우카키 총독의 부임으로 조선에서 '모리야 인맥'은 점차 약화되어 갔고 1934년 7월 농림정무차관에 취임하면서 조선문제에만 전념할 수 없었다. 동북의 쌀 곡창지대이자 자신의 지역구인 미야기현와 정치적 기반인 조선이 미곡통제문제로 이해가 충돌한 가운데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만은 없었다. 게다가 제1당인 정우회를 탈당하면서 정치력도 약화되었다. 이러한 모리야의 퇴장은 정당내각제 시기(1924~1932) 이래 조선통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당정치의 조선에서의 쇠락을 상징한다.

## 참고문헌

- 고태우(2019), 「1920년대 말~1930년대 전반 토목담합사건 연구」, 『역사문제연구』 23(2), 역사문제연구소.
- 김명수(2015), 「제조일본인(在朝日本人)의 신탁회사 설립과 경영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 2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김명수(2011), 「제조일본인(在朝日本人) 토목청부업자 아라이 하츠타로(荒井初太郎)의 한국진출과 기업활동」, 『경영사학』 26, 경영사학회.
- 김종식(2016), 「1910년대 제조일본인 정치가의 정체성 형성과정: 마키야마 고쥬(牧山耕藏)를 중심으로」, 『사림』 56, 수선사학회.
- 송규진(2014), 「함경선 부설과 길회선 중단항 결정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 『한국사학

- 보』 75, 고려사학회.
- 이동훈(2022),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藏)의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제국의회 중의원과 식민지 언론인의 활동」, 『식당논총』 82, 동아대학교 석당연구원.
- 이승엽(2018), 「재조일본인 중의원 의원 오이케 주스케」,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 어문학사.
- 이형식(2021), 『守屋榮夫關係文書』, 아연출판부.
- 이형식(2018), 「‘조선의 전기왕’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와 조선사회」, 『동양사학연구』 145, 동양사학회.
- 이형식(2014), 「1910년대 일본제국의회 중의원과 조선통치」, 『사총』 82,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전성현(2022), 「‘조선관계대사’ 사토 준조(佐藤潤象)와 식민지 조선의 개발사업」, 『한국근현대사연구』 101, 한국근현대사학회.
- 전성현(2013), 「식민자와 조선: 일제시기 大池忠助의 지역성과 ‘식민자’로서의 위상」, 『한국민족문화』 4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최병택(2015), 「‘경성토목담합’ 사건을 통해 본 일제하 토목 청부업계의 담합 관행」, 『역사연구』 28, 역사학연구소.
- 최병택(2015), 「1920년대 초~1930년대 전반기의 하천개수사업과 토목청부업 비리」, 『사학연구』 118, 한국사학회.
- 하지영(2021), 「1920년대 전반기 군산의 일본인 阪上貞信의 제국의회 진출과 활동」, 『식당논총』 81, 동아대학교 석당연구원.
- 大西北呂志·李圭倍(1997), 「昭和期の朝鮮總督府支配: 宇垣一成を中心に」, 『靑丘學術論集』 11, 韓國文化研究振興財団.
- 角田順(1970), 『宇垣一成日記 2』, みすず書房.
- 加藤圭木(2017), 『植民地期朝鮮の地域変容: 日本の大陸進出と咸鏡北道』, 吉川弘文館.
- 川人貞史(1992), 『日本の政党政治 一八九〇—一九三七年: 議會分析と選舉の数量分析』, 東京大學出版會.
- 洪昌極(2021), 「植民地期朝鮮北部における水利組合事業の歴史的 성격: 咸興水利組合の創設過程を事例として」, 『人民の歴史學』 226, 東京歴史科學研究会.
- 児玉琢口述·竹下留二(1933), 『朝鮮の談合』, 竹下留二.
- 戰前期官僚制研究会 編(1981), 『戰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學出版會.
- 手塚雄太(2018), 「第一回普通選舉における選舉運動: 内務官僚·植民地官僚守屋榮夫を事例として」, 『史潮』 84, 歴史學會.
- 広瀬貞三(2010),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羅津港建設と土地収用令」, 『環日本海研究年報』 17, 新潟大學大学院現代社會文化研究科環日本海研究室.
- 松田利彦(2009), 「朝鮮總督府官僚守屋榮夫と「文化政治」: 守屋日記を中心に」, 松田利彦·やまだあつし編,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思文閣出版.
- 松田利彦(2008), 「朝鮮總督府秘書課長と「文化政治」: 守屋榮夫日記を讀む」,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松浦正孝(2010), 『「大東亞戦争」はなぜ起きたのか—汎アジア主義の政治経済史』, 名古屋大学出版会.

李炯植(2013), 『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吉川弘文館.

李炯植(2007), 「戦前期における中央朝鮮協會の軌跡: その設立から宇垣總督時代まで」, 『朝鮮學報』 204.

『京城日報』 1932년 6월 23일.

『매일신보』 1932년 7월 8일, 1933년 12월 5일.

『釜山日報』 1931년 1월 20일, 1931년 2월 4일.

『朝鮮新聞』 1930년 11월 5일자, 1930년 12월 29일, 1932년 10월 11일.

『朝鮮日報』 1930년 10월 24일.

원고 접수일: 2022년 10월 7일, 심사 완료일: 2022년 10월 17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8일

## ABSTRACT

# Seiyukai Representative Eihu Moriya and Colonial Chosen Society

Lee, Hyongsik\*

Moriya Eihu exerted very strong power as the ‘doorknob power’ of the governor of Chosen during his term of office in Chosen, and continued to have an influence on Chosen with the ‘personal connections of the Governor-General of Chosen’ and those of the northeast area remaining in Japan as his background, even after he had left Chosen in 1924. Even after he became a member of House of Representatives, he raised funds for the war and rallied its supporting forces by establishing a Chosen branch of Dainihonsyouwarenmei, his own political organization. Using his ‘personal connections with Chosen people’ as a former lawyer, he took charge of big cases in Chosen, and got deeply involved in Chosen society and pending issues of Chosen by playing a role of window of the colonial lobby between Japanese in Chosen and influential people of Chosen. In this paper, the cases that Moriy was concerned with in his Jungwoohoe days, such as the case of Chosen industry, the establishment of Hamheung hydroelectricity, the Chosen civil engineering collusion case, and the matter of accepting Najin land, were used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colonial politics operated.

As a former colonial officer, Moriy made trials of the Chosen industry case, the Chosen civil engineering collusion case and others advantageous to his clients by contacting judges in advance or by mobilizing the Chosen governor, the prime minister, and the first political party, Jeongwoohoe, during the trials. Through his defense in the Akutsu trial where he turned away from the Chosen people whose land had been taken away, he not only earned a reputation as a lawyer, but also could finance his office as a member of House of Representatives. He raised funds by speaking for the influential Japanese in Chosen. In addition, he was also actively involved in the business of interes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Hamheung hydroelectricity or the matter of accepting Najin land. In this process, he contacte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Mantetsu, local governments and others and lobbied them widely. His 'colonial lobby' for the establishment of Hamheung hydroelectricity can be said to be the typical case of 'colonial development' through 'the corrupt relationship among government, business and offices' although it was dashed because of local residents' fierce opposition.

**Keywords** Eihu Moriya, Seiyukai, Dainihonsyouwarenmei, Civil Engineering Collusion Case, Choseon Trust Company Incident